

與 지방선거 앞두고 곳곳서 ‘차출설’

정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관측이 전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당정으로는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 승부를 걸어야 할 호남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거물급 차출설’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차출설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은 김부겸·김영춘·김경수 3인방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김부겸 대구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김영춘 부산시장 ‘쓰리 트리오’로 가야 가장 승산이 높다”고 강조할 정도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권 내 대구시장 후보 1순위로 꼽힌다.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김 장관이었는데 당 안팎의 이견이 없다. 지방선거에서 대구 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도 김 장관의 출마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본인이 불출마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어서 실제 출마 가능성이

김부겸·김영춘 장관 차출설 꾸준히 거론 ‘친문’ 김경수 경남·이호철 부산 출마설 추미애 대구·임종석 전남 출마설도 등장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당선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직과 국회의원까지 단지면서 출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대구 출마설’도 제기된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추 대표로서는 대구시장에 나가는 게 살길”이라며 “나가서 되면 진짜 좋은거고, 떨어져도 명분이 있으니까 낫잖아”라고 했다.

그러나 추 대표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 대표 측 관계자는 “대구사람이었다고 대구시장에 나가려는 것은 1차원적 발상”이라며 “만일 지방선거에 나간다면 서울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시장의 경우 김영춘 해양수

산부 장관이 한동안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정와대에서도 김 장관이 입각할 당시부터 그의 출마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호철 전 참여정부 민정수석 출마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초기 캠프였던 ‘광홍창립’의 한 관계자는 “이전 수석은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본인이 뜻이 좁다. 선출직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한 초선의원도 “주변에서 출마 권유를 강하게 받고 있다”고 했다.

경남지사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 의원 본인은 원내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다. 친문진영 일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을 돕는 일부 의원이 박 시장에게 직접 경남지사 출마를 권유하기도 했지만 본인의 3선연속이 강해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중남지사의 경우 안희정 현 지사의 불출마가 사실상 확정적인 가운데, 박수현 정와대 대변인이 출마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에는 전남지사로 임종석 정와대 비서실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남 장흥 출신의 임 실장이 이례적으로 광주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에 이어, 전남 순천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차출설’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를 기정사실로 한 가운데, 맞대결을 펼칠 카드가 미정지 않은 가운데 이반영된 결과다.

임 실장 본인은 서울시장을 포함해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와대의 한 관계자는 “임 실장이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않은 채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전남지사를 하려고 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기자회견에서 정호성 부대변인 등 한국당 부대변인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혁신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의결 지지 선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부대변인단 “洪 대표에 힘 실어달라...서청원·최경환 반발 추해”

자유한국당 부대변인단은 29일 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한 마음 한뜻으로 홍준표 대표와 혁신위원회를 지지하고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를 의결한 것은 당원들의 절절한 염원을 받드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럼에도 두 의원이 원로 정경파다운 의견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반발하고 있는 것은 당원과 국민들에게 두 번 실망을 안겨드리는 추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서청원 의원은 당 대표에게 출당을 멈추지 않으면 무슨 낙취를 공개한다고 회유·협박하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음모적인 공작과 협박도 서슴지 않는 구태정치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모습에 분노에 앞서 측은한 마음이 들뿐이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퇴출의 정당성만 더 부각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마음으로 혁신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지지해주길,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재건과 정권 재탈환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부대변인단은 “당 혁신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결단에 반(反)하는 반개혁, 반혁신적 처신을 하는

국민당 제2창당위 “조직 혁신 다음과제는 개헌·선거제도개혁”

바른정당과 통합관련 “명분·국민 지지 검토 필요”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가 최근 당내 논란을 일으켰던 시도당·지역위원장 총사퇴를 통해 제안했던 조직혁신 다음 과제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세력과의 연대라고 밝혔다.

김태일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금요일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출범했는데 이번 주부터 해야 할 중요과제는 이 일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이 문제를 함께할 수 있는 정치세력과 연대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양당제를 깨뜨린다는) 역사적 과제를 우리가 한번 도전한다는 취지도 있고 이 과제가 앞으로 우리가 누구와 협력, 손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고려이고 시급하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국민의당의 모든 역량을 던져 이 과제 실현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정체성 관련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금방

내용을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며 “이 문제를 풀러싸고 조금 더 개혁적 노선을 우리당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 의견과 중도노선이 보다 실효성 있다는 의견 등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이 흐름이 함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는 아닌 것인지는 따져서 당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주장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관해서 김 위원장은 “정당 간 연대와 통합은 여론조사로 결정할 순 없지 않나. 속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여론조사상으론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분, 계기 등은 무엇인지, 당내 공감도 있는지, 국민들의 지지가 수반됐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승용 공동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선 “(통합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며 “첫째는 김치국을 먼저 마시면 안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공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창당위원회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일(왼쪽 두번째) 공동위원장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병호 부위원장, 김 공동위원장, 오승용 공동위원장.

심을 미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차분하게, 국민의당 앞에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개인 차원의 제안임을 강조하면서 “안철수 대표의 대선 공약과 유승민 의원의 대선 공약을 비교해 비슷한 부분은 같이 행동할

수 있고 다른 부분은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이고 어디까지 쫓을 수 있는가 얘기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 처음부터 앞서 나가는 언행도 문제고, 차이를 부각하면서 공포심을 갖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문병호 “국민의당, 객(客)만 득실..주인의식 가져야”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문병호 상임부위원장은 29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당에는 객들만 득실거리지 주인이 없단 생각이 됐다. 당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제2창당이 성공하고 국민의당이 성공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이랑 식당에서 밥만 먹고 갈 사람이 많았지 쓰레기를 치우고 먼지를 치운 사람은 없었다고 평가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문 부위원장은 “특히 당의 지도부, 국회의원일수록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헌신과 믿음이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게 주인의식”이라며 “최근 당이 지지도 회복을 못하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 내홍으로 치닫게 된 것처럼 보이게 된 건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선당후사 정신으로 하지 못했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